

한국의 건축가 9 - 김종업(2)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대답내용 - 김종업 건축과 샤머니즘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by Zho In-Choul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 김종업 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2. 대답내용
- 김종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답내용
- 김종업과 르꼬르뷔제
4.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김종업 건축의 어휘

대답일시 : 1987년 11월 10일 오후 12시 30분~14시

대답장소 : 김종업 설계연구소 응접실

샤머니즘의 건축

조인철 : 선생님! 종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종업 :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가깝지, 집안이 불교니까. 내가 특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조 : 선생님께서 지난 79년에 귀국하셔서 공간사에서 김원씨와 좌담¹⁾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에 '샤머니즘적인 미스테리를 집어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이후 작품에 그러한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작품에서 구사하고 있는 건축어휘들은 다른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공통적인 맥락이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지붕 위에 안테나 모양의 어휘는 샤머니즘적인 미스테리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 : 일단 샤머니즘이란 것은 말이야, 일단 뭐인가 하면, 무속적인 전통을 말하는 건데, 무속적인 전통이란 것은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를 놓고 보더라도 불교가 일단은 순수불교라기 보다는 재래종교와 합치된 불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에 가 보더라도 칠성각이 있질 않나. 칠성각 같은 것은 사실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원시종교인 샤머니즘과 직결되어 나가고 또 더욱이 단청의 상황을 보더라도 맨처음 단청을 칠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한 바이탈

1) 김원, "건축가의 프라이드, 사회적 의미," 『공간』, 서울:공간사, 1979.3, p.43.

리티(Vitality)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 그런 것이 이제 사머니즘하고 불교하고 합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머니즘이라는 것을 놓고 볼 적에는 한 개의 문화적인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수되어 내려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를 볼 적에는 상당히 색감이 풍부하고 말하자면 발랄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해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격하다고 그럴까 뭐 이러한 성격이 그런데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것이 자연히 건축에도 반영이 돼 내려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말하자면 건축의 다양성을 만들어 놔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한 개의 바이탈리티한 원초적인 그러한 것이 내몸에 비추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작가로서 자연히 빠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곡면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던가, 자네가 얘기한대로 지붕 위에 무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반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

조 : 지붕 위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원시인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하늘과의 교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늘과 같이 공존하고 싶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김 : 그럼! 공존하고 싶은 거지!

조 :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보면 '신화나 꿈의 재생'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는데, 신화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탈 신성화되고, 또 그럼으로써 현대인의 심성은 좀더 황폐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꿈이나 신화의 재생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은 이러한 병든 인간성의 회복에 비중을 두고 계신 건가요?

김 : 그건 자네 생각이 옳아. 말하자면 인간 회복이라는 것이 제일 첫째 강하게 나타나겠고 그러니까 내가 흔히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소위 어떠한 땅, 땅자체는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싶은 의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그러한데서 나타나는 내 직감적인 한 개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또 일단 '건축이라는 것이 인간이 던져주는 강렬한 사인이다'라는 얘기도 내가 자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는 나면 그 자연 자체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야. 그러니까 그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건축이라는 것이 절대지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일회성의 작업으로써 이루어 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지(團地)에는 물론 똑같은 것이 서로 모여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조건도 다르고 그 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데 같은 것들이 놓여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단 그 땅에서 오는 해석, 아주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겠지. 나는 그런 대지가 짊어지고 싶

은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의지를 건축가는 일단 그 의지를 살려서 그 위에 '한 개의 일회성의 꿈'을 집어넣어 주는 거란 말이야 '건축이라는 게 한 개의 인간의 꿈을 살려 두는 작업'이야. 휴머니즘 이런 거와 통하는 얘기겠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소위 건축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한 개의 결실로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다면 그 일회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없이 그 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도 어울려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말하자면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개체로서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나의 건축관의 하나이지.

조 : 자연도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속하는 건축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의 건축행위가 원시인들이 추구한 중심성의 회복이라고 할까,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려는 그러한 작업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대 이후부터 건축물은 원시인들이 추구했던 균질공간의 위계공간화가 다시 균질공간화로 전개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의 작품은 이러한 균질의 공간, 즉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을 의미있는 공간 내지는 공간의 위계화, 질서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건축에 있어서의 지붕

조 :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생님 작품에서 지붕 또는, 기둥에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붕만 하더라도 불란서 대사관의 경우를 보면 소위 여성적이고, 비애의 곡선으로 대변되는 우리 전통의 지붕선(線)에 대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전통 지붕의 가벼움, 날렵함의 측면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지붕을 건축적인 어휘로 보면, 비나 바람을 막아 주고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작품에서는 덮는 역할은 포기하고 가벼



경복궁 경회루

움이라든지 경쾌함이라든지 어떤 힘이 느껴지는 역동적 성격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말하자면 자네가 경복궁에 가서 경회루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말이야. 그러면 경회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붕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륨(Volume)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체 비례로 봐서 지붕이라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말하자면 큰 비중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이 가볍게 보이지. 인간을 압박한다던가 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 소위 하늘에 띄워주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구.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한민족 밖에 없어. 전세계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붕을 사뿐히 띄워 올렸다' 는 것은 대단한거라구. 디자인에서나 또 인간에게 주는 감동에 있어서나 상징성에 있어서나 그러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좋은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야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불란서대사관을 보더라도 그 관저(官邸)의 지붕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크지만 그것이 큰 것이, 말하자면 한 개의 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린 그런 기분' 이 들게할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의 지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조 : 근래에 지붕에 대한 여러 건축가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해석과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우리 전통건축의 지붕은 소위 여성적이고 우아한 곡선을 살리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통지붕의 곡선에 내재된 또하나의 의미로 사뿐히 띄워 올림, 치켜올림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의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의 출발점에서 여성적인 곡선의 표현에 목표를 두느냐, 가벼움이나 경쾌함에 주안점을 두느냐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김 : 나는 그렇게 보지. 한국 사람이 기질적으로 한국에 정착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할 적에 한국의 문화하고 유관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산들이 뭐 하여튼 인간을 압박한다던가 말하자면 그 산이 가지고 있는 보륨(Volume)으로써 육박해 오는 산들은 적어요. 거기다가 한국은 준공원(準公園) 같은 지대고 거기에서 산들도 그렇게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 산을 대해 올적에 하나의 친근감으로 대해 왔지 위협의 존재로써 대해 오진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야. 한국의 자연이 일단은 말하자면 군무(群舞)가 많았고 뭐 하여튼 그 상당한 위협한 그러한 물줄기가 아니고 상당히 우아함이 우회해서 돌아서 바다까지 내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류들이 적었다 말이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말하자면 강(江)도 인간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친근할 수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이 형성되는 것을 보더라도 강이 있으면 강을 남쪽에 다다 놓고 마을들이 웅기종기 일어났단 말이야. 또 산들이 다 우아하기 때문에 산에 사람을 묻더라도 일단 등그런 무덤으로서 일단 산에다 사인을 던져준 것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풍토적인 성격에 바탕을 둔 것이고 거기 살아오는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와지붕을 보더라도 기와집이라는 것이 다 지붕이 사뿐하다고. 기와집은 중국에 가면 굉장히 그 말하자면 끝에 가서 치켜올리고 뭐 별 걸 다했는지 우리 나라만큼 그렇게 우아한 곡면의 지붕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초가지붕은 뿔뿔산하고 뿔뿔한 게 꽤 있고 이러한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평화스럽고 하여튼 어쩔 수 없는 한 개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통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한국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굉장히 격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넘보지 않았다는 것, 침략을 한다던가 말하자면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거 뭐 이런 것이 폭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한 자연에서 오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강의 모습이라던가 자연의 모습하고도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공존돼 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봐. 그러한 것이 자연히 건축에도 꾸준히 이어내려 왔다고 나는 보는 거지.

조 : 지붕 자체를 사머니즘적으로 해석하면 지붕은 새의 날개로 보고 기둥은 새의 다리로 볼 수 있는데⁹⁾ 선생님께서 사뿐히 띄워올렸다, 치켜올린다고 하시는 것은 더욱 새의 날개로 비유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 : 그렇지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려 버리고 만 거지.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렸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거라구. 한국의 건축에서 보면 그런 것이 신라의 탑에서도 전부 나타난 거지.

조 : 선생님의 작품에서 보면 원시인들이 다 산이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남성 성기를 많이 숭배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부인파라든지, 외환은행 계획안 같은 경우는 남성 성기 모양이 연상되는데 그러한 형태



불란서 대사관

가 과연 샤머니즘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작품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김 :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지. 말하자면 성기 신앙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서구라파에도 있었고 또 소위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야 틀림없이 있고 한국에야 뭐 많지. 소위 한국의 장승이라는 것도 따져 놓고 보면 성기에서 발전되어 온거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기 숭배라는 것은 물론 원시시대부터 내려왔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소위 한국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네들이 숭상하고 받아들여 왔다는 것은 한 개의 한국인의 마음속에 꾸준히 자라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내작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일부러 뭐 내가 그런 것을 꼭 조작하려고 한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하고 유관한 작업이 나오는 거지. 나는 작업을 할 적에 일단은 첫째가 이거야. 뭐인가 하면 우리 것을 내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것을 내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놓고 볼 적에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 구분되고 내 작업하고도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몇몇해지지 않느냐. 말하자면 내 작품이 외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 것을 내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소위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하등의 까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대본관 같은 거라던지 불란서대사관 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쪽에서 상당히 알려진 작품이지만 그러한 작품이 외국에서도 특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네 하고 있는 작업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엑조틱(Exotic)하다느니 뭐 동양적이니 하지만 한국적이기 때문이야.

조 : 외환은행의 경우는 은행이니까 다산이라든지 발전, 축적의 개념에서 보면 그 상징성이 맞아떨어지고, 서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라는 특수성으로 생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원시인의 사고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조 : 민족대성전계획 하실 때 민족대성전이란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기독교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에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치라든가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전혀 교회 같은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자체는 유일신을 강조하는 교리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서구 교회를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 하셨는지요?

김 : 아니 그것도 물론 직결되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절을 구상했다 할 것 같으면 정상에 올리질 않아요. 나는 그 산세를 보아서 거기에 제대로 포용되는, 말하자면 한 개의 조화로움이라고 말할까 그러한 형태를 추구했을 거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나는 기독교를 호전적인 종교로 보거든 말하자면 한 개의 소위 강인한 기계라든가 식민지 개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종교하고 직결되어 있는 요소 이니까 말이야. 그런 것을 나는 직설적으로 일단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산봉우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봉우리에서도 높이 추켜 올라가는데 구상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 뜻, 그런 거하고 일단 유관한 거지 무관한 게 아니야.

조 : 산이 한국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상적으로 채택된 산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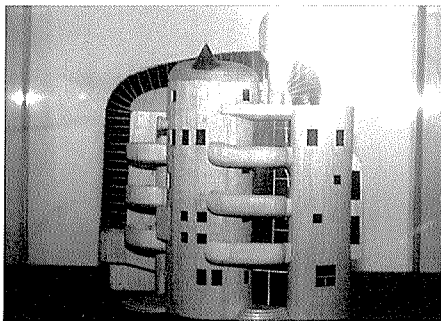
김 : 아니야 그건 맨 처음에 주어진 요건이 결정해준거지.

조 : 산 이름이 무엇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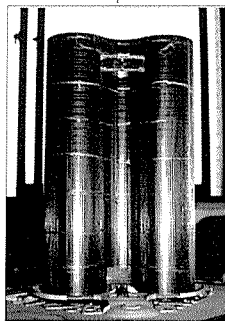
김 : 북한산 뒤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는……

조 : 선생님 작품 중에서 박시우치과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완결된 형태로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그로테스

2) 이영기, "한국전통건축의 샤머니즘적 상징성," 『공간』, 서울:공간사, 1984, 12, pp.137-143.



서산부인과의원 모형 : 실제 지어진 상정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가 표현됨



외환은행 계획안 모형 : 프랑스의 조그만 시골마을에 머물면서 계획한 작품



이두재씨의 장승조각품 : 1988. 5. 27~6. 2 東崇美術館

크(Grotesque)한 기둥과 매끄러운 외관이 결합되어 있고, 옥상부분에는 피고리가 걸쳐있는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대지의 의지에 부응하여 그대로 앉힌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작품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시죠.

김 : 그건 그거야. 말하자면 소위 건축이라는 것을 놓고 볼 적에 일단은 의지라는 것이 나타나거든. 가령 나는 어떤 의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건축은 제대로 구상된 작품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것이 있는 데 서산부인과 박시우치과병원 그것만 하더라도 대지가 굉장히 좁아요. 대지가 좁고 코너고 그런데 그걸 놓고 볼 적에 말하자면 조그만 매스를 가지고 있고 조그만 작품이라도 어떠한 다양성과 일단 각별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건 직결되는 얘기가. 그래서 우선은 그 빌딩이건 무엇이건 어떠한 작품이 눈을 끌어야 된다고, 눈을 끈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면서도, 소위 자길 주장하다 보니까 다채로워지는 거고 또 말하자면 소위 비일상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의 건물에 둥그런 원이 올라가고 그것이 또 빨간 색으로 표현된다던가 뭐 이런 것이 그런데서 연유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조 : 그 퍼골라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띄워 보내는' 극단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추상화된 형식으로 이해되는데 비행접시 같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꿈과 동시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나름대로는 그 퍼골라를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 지붕의 띄워 보냄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표현이라면 퍼골라를 잡고있는 피기스러운 원통형의 계단은 과거 신화의 표현으로, 주된 입면을 구성하는 매끄러운 유리창호는 현재의 거울로 해석 될 수 있는데, 결국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서로를 부동켜 안은 채로 플라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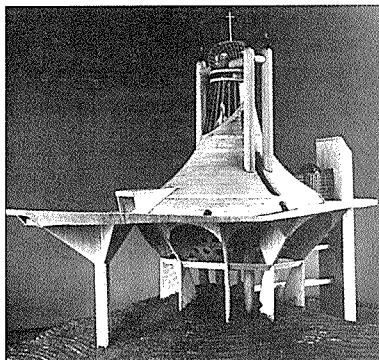
김 : 한 개의 플라주(Collage)지! 그거 잘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작품을 구상한다는 것은 일단은, 아까 이야기 한 것같이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서산부인과 의원 대지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올려 놔주고 싶었느냐 하는 거기부터 나는 일자체에 들어가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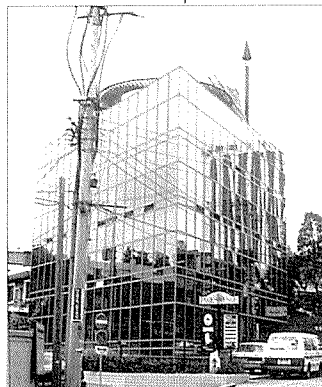
건축에 있어서의 기둥

조 :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지붕에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제나름대로는 지붕에 못지않게 기둥도 건축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둥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거나 할까 기둥이 선돌에서부터 시작되어 장승으로 연결되고 건축화되면서 기둥으로 이어졌고 음양으로 보면 기둥은 남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지곤 하는데요. 그것이 선생님 작품에서 보면 기둥 자체가 어떤 선돌의 이미지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한국 미술관의 기둥에서도 나타나는데, 건축 부재의 하나로서 건축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선돌처럼 기둥 자체로서의 의지를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 :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일단 건축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의 한 개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빛을 받아서 바꾸어 말하자면 소위 한 개의 양성(兩性)이겠지. 음양으로 따지면, 양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를 그리면서 음적인 그러니까 양과 음의 법칙이 있는데 양과 음의 문제가 건축이예요. 그러니까 양과 음에 있어서 일단은 난 그거야! 양과 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건축에 지워진 한 개의 그,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속성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일단 거기에 나와 있지만 말하자면 해군 공관의 지붕을 뚫었다던가 말하자면 이제 자네가 이야기한 한국 미술원이랬나, 한국 미술관 이랬나, 이태리 대사관이었는데, 거기에 기둥이 올라가고 기둥을 따라 빛을 끌어내린다던가 하는 작업이 일단은 빛과 그림자로서 구성되는 건축에 있어서 좀더 강렬하니 자기가



민족대성전 계획안 : 산꼭대기에 위치한 기독교 교회



박시우 치과의원 : 과거, 현재, 미래의 플라주



서산부인과의원 : 꿈의 표현인 지붕위의 어휘들은 모두 삭제됨

말하자면 주장하고 싶은 것 소위 외국에 전해 해군 공관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일단 소위 빛을 끌어당겼다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국내에 그런 것을 이제 뿌려 놨다는 것은 일단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조 : 선생님 작품 중에서 이탈리아 대사관은 잡지에 소개될 때 건물의 기능이 주택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사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설계 당시에 대사관으로 계획하신 건 입니까?

김 : 아니야 이경호씨택으로 계획한 거야. 원래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사관으로 사용하다가, 한국미술관으로 쓰게 된 거지. 운명적으로 그건 개인 집이었어요. 이경호씨택이라고, 이경호씨 돌아가셨지만 지표면에 어떠한 것이 놓여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담는 문제, 문제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들어가서 일단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거 건축이라는 것이 일단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 대사 관저로 쓰고 있는 그 건물만 하더라도 일단은 관저로 쓰여지다가 말하자면 개인의 관저나 개인의 집이나 비슷한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술관으로 기능을 바꾸었는데 그 기능이 크게 모순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은 인간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것도 일단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담은 그릇이고 거기에 음영의 존재도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 어떠한 것을 규정지어 준다면 그 규정지는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무엇으로 또 사용될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간에게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인간하고 같이 더불어 말하자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부여해 준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지.

조 : 선생님의 작품과 외국 작품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보탑 이라든지 가우디의 라사그라다 피밀리아와 같은 작품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 내가 좋아하지!

조 : 그런 작품과 선생님 작품은 사용 어휘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 : 물론!

조 : 그러니까 가우디의 작품이나 루이스칸의 메디컬 센터라든지 르꼬르뷔지에의 룹상교회 같은 작품들과 선생님 작품하고는 어떻게 연관시켜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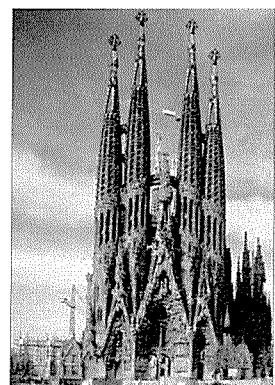
김 :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문젠데. 그러니까 인간 김중업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말하자면 유년시기를 어떻게 지냈느냐, 유년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난 평양에서 나서 평양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때 하여튼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눈 뜬 시기란 말이야. 그 눈 뜬 시기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 신비롭고 말하자면 알고 싶어서 애쓰는 거고 또 일단 어린애라는 것은 어른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가면서 자라나는 거란 말이야. 자라날 적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낙인이 찍혀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났다는 한국적인 것이 어렸을 때부터 숙명적으로 나한테 따라 다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가지구서 성장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겪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일단 난 구라파하고의 말하자면 소위 유대 관계를 가져가지구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론 있었고 또 바르셀로나에 가서 가우디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했고 또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일단 밤새도록 일단 소위 나한테 주는 한개 소위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한 개의 영향이겠지. 그러한 것을 받으면서 나는 성장을 해왔다는 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것들이 내 작품 구석구석에 나타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단 바탕은 한국의 바탕인데 일단 나로서는 선택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된 길 위에서 나타난 일들이 가우디와의 만남이라던가 르꼬르뷔지에 하고의 만남이라던가 또는 파르테논 하고의 만남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만남이 내게 굉장한 중요성을 던졌고 내 형성돼 나



한국미술관 : 빛의 내림



불국사 다보탑



가우디의 라사그라다 피밀리아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과의 공존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공존상태라고 표현하지 무슨 뭐 소위 무슨 절대적인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것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서 형성되면서 내 작품세계가 전개되고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내 비석이 있는 곳은 우리 한국의 사머니즘적인 기질 내지 영향이겠지 그것이 내 끝장까지 가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나는 뭐 인가하면 우리가 전세계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전 세계의 문제지 어떠한 한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디까지나 지표면 상의 한 점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일단 전세계하고 연관성을 가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세계하고 연관성을 가졌을 때에 나의 작품은 내가 존재하는 의미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 할 도리가 없겠지. 작가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은 나는 남과 다른 작업, 남과 다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바탕을 둔 작업, 남이 나한테 소중한 것 그래야 일단 전 세계를 놓고서 나자신의 오리지널리티라든가 내 자신의 중대한 한 개의 사고라든가 이데아라든가 이러한 것을 나는 당당히 펼쳐 보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니까 하겠지, 저력이 있는 거고 아마 현대에선 제일 강한 인간의 하나일 거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적에 또 그렇게 인정들 받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내 생존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지.

조 : 선생님 혈액형이 A 형이십니까?

김 : 아니 AB형! AB형이 천재들이 많이 난다고 하지. 르꼬르뷔제 선생님은 날 갖다가 거의 매일같이 천재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날 굉장히 인정해 주셨다고 (불어로 말씀후) 그러니까 '너는 참뜻의 존재다' 이런 말씀을 르꼬르뷔제 선생님이 매일 같이 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구의 영향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겠지. 그 양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뉴 바이탈리티가 조금은 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사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철저하면 그것은 창조적인 인간이 안될 도리가 없는 거지. 건축가라는 것이 말하자면 '건축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꿈없이 건축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을 비판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직설적으로 받아만 들인다 하는 자세는 건축가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 건축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던지는 큰 사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시무시한 사인을 하다 가는 사람이 건축가야. 그러다 보니까 꿈이 바탕에 깔리지 않아가지고는 건축가라는 것은 생존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꿈이라는 것을 가꾸어 왔고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 자작시도 많이 썼다는 것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것 뭐 이러한 것이 내 꿈하고 연관되는 얘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선 말하자면 나를 포에틱 아키텍트(Poetic Architect)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시인 건축가라고 직설적으

로 나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심이 깊다는 것 풍부하다는 것 이런데서 나오는 내 한 개의 말하자면 과정이고 체계적이겠지.

조 : 선생님께서는 상당한 독서량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사상가랄까 철학자랄까 아니면 좋은 책이랄까 동양철학, 서양철학 등 영향을 끼친 사상이라면……

김 : 물론, 그러니까 나는 독서에 있어서는 거의 하루에 한권정도 매일 읽고 있지. 아마 수천 권의 책을 읽었을 거야 그것도 골라서 읽었겠지. 닥치는 대로 읽은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굉장히 공감한 작가들이 여럿이 있지. 공감하는 작가 중에 가장 크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할 만한 작가들을 든다면 내가 노자를 좋아하고 장자를 좋아하고 말하자면 동양에 있어서의 한 개의 고전이지. 논어나 맹자보다 나는 소위 장자나 노자를 좋아했다 하는 것이 한국의 바탕에 깔려 있을 거고 또 서양으로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시인들을 좋아했어, 보들레르를 좋아했고 그리고 나한테 굉장한 공감을 준 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소설 있잖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내가 미치도록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그 분이 살다간 집들까지 내가 찾아다녔으니까. 그 정도로 내가 좋아했고 더군다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라든지 울코이츠의 소네트는 줄줄이 외다시피 했고, 그렇고 작가로서는 난 도스토예프스키를 정말 탐독을 했고 또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그 사람의 그 작품에 나타난 바이탈리티 그 '외와벌' 보다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는 말하자면 굉장히 보륨(Volume)이 큰 작품인데 그걸 아마 7번 정도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한 개의 그나하고 공통된 한 개의 바이탈리티 한 개의 사머니즘에서 오는 한 개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추리소설 같은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한테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물론 나야 소위 베에토벤부터 시작한 사람이니까. 젊었을 때 베에토벤부터 출발해 가지고 베에토벤의 강인한 의지, 강인한 자기사고가 특출했지. 누구나 거의 비슷할 거야. 그 체계는, 바하나 모짜르트 또 그러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작가로서의 슈베르트나 리하르트 슈만 그러면서 내게 지대한 영향을 다시 끼치게 되는 것이 일단은 소위 바그너지. 바그너의 그 드라마틱함 그 말하자면 소위 지나치리 만큼 다혈질적인 그런 작품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소위 말하자면 바르토크 벨라 바르톡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작품을 좋아하게 된거라구.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내가 성장해 오는데 내게 상당한 내 한 개의 인격이라든가 내 한 개의 감성이라든가 내 자체의 작가정신이라든가 이런데 강렬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다음호 계속)